

與 차기 대권주자들, 내달 재보선 '시험대'

대통령 선거 D-1년

벼랑끝 이낙연, 명운 걸어... "승리로 평가받을 것" '관전자' 이재명·정세균은 정책, 소통 마이웨이 임종석·이광재 등 잠룡, 재보선으로 도약 모멘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기로에 선 상태다. 지난해 8월 파죽지세로 전당대회를 휩쓸었지만 7개월여가 지난 현재 받아들인 성적표는 벼랑끝 위기 상황이다. 21대 총선 직후 40%를 넘기던 지지율은 하락세를 거듭한 끝에 두 자릿수 붕괴가 위태로운 형국까지 밀렸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부득이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재보선의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에게 실리게 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총선 참패로 치명상을 입은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마무리와 이 대표 개인의 대선 레이스 완주 여부가 재보선에 걸려있는 셈이다.

이에 이 대표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재보선에 명운을 걸었다. 특히 '준대선급' 선거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보다 선당후사"라며 "보선 승리를 이끌어 차곡차곡 본인의 역할을 다하면 국민에게 진심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인 만큼 재보선 국면에선 '관전자'에 가깝다. 이 지사가 한발 물러나 있는 사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더욱이 야권 유력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전문 제3후보론의 도전을 받을 공산도 크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도정에 집중하면서 이재명표 정책 어젠다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핵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에서 '기본' 시리즈를 부각시켜 서울시장 선거 이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보선 국면의 관전자 중 한 명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변의 관측대로 선거 후인 4월 말 '자유'의 몸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와 더불어 1분기 경제지표에서 선방했다는 성적표를 안고 당으로 복귀한다면 여당 대권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좀처럼 '마의 5%'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지난 1일자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월 대비 1.6%포인트가 빠진 2.4%를 기록했다. 특히 정 총리의 호남 지지도는 4.8%로 윤 전 총장(10.9%)에도 못미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를 활용하며 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반기를 든 윤 전 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질타하는 등 연일 선명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여타 잠룡들도 재보선 지원에 팔 걷고 나서며 선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남북 도시교류 특강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을 찾은 것으로 15개 지자체를 방문했고, 이후에도 40여곳과 계획이 잡혀있다.

임 전 실장 측은 뉴시스에 "재보선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후보 캠프가 꾸려져 선거 캠페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며 "총선 때도 답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번 재보선 역시 후보들의 지원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총력지원에 나섰다. 처갓집이 부산인 데다가 친노·친문의 핵심 지역인 부산·경남(PK)에 전력투구해 존재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권레이스에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전문 그룹에선 여전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재보선 승리로 친문 주류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거나, 패배로 위기에 내몰리거나 유 이사장의 등판은 필연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전망이다.

뉴시스

서동용, 해양수산부와 광양항 발전전략 논의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최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항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양

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배후부지 확충, 항만 자동화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라는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광양항 배후부지 확대 및 항로 준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광양항~울손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묘도 투

가장 항만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특히 광양항의 핵심사업인 스마트 항만 자동화 사업에 대한 사업 경과보고를 들으며, 현재 진행 중인 KDI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해수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서동용 의원은 "과거 투포트 전략에서 벗어나 광양항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항만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를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다"면서 "스마트 항만 구축과 배후단지 확대 등을 넘어서 향후 광양항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해수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 등과 토론하며 이에 대한 광양항이 미래에 실제 아시아 최고 스마트 물류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박영선 캠프에 강경화 전 장관 합류...국제협력위원장

강경화 "박 후보의 리더십에 서울 미래 맡길 수 있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합류한다.

7일 박 후보 측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캠프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대전환'을 위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은 풍부한 외교 경험과 지식, 그리고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멜버른'에 이은 '21분 도시 서울'의 완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서 1년9개월 동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국

무위원으로 지내며 각별한 신뢰와 돈

독한 관계를 맺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이 "박 후보의 열정과 추진력, 리더십에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11일 종로구 안국빌딩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으로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네 번째 인사가 됐다. 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병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박 후보의 안보, 환경·도시, 문화·예술 자문단장을 맡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승호기자

김희재 "여수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전남 유일 선정"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첨단화에 20억원 투입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여수시와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남에서 유일하게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통, 안전 분야 등의 확산 솔루션 리스트를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20억원 규모 내에서 2가지 솔루션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사고 다발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12개소, 13억원)와 스마트 버스정류장(4개소, 7억원)을 설치하여 안전한 스마트 교

통도시 여수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재 의원은 "교통안전지수 D등급, 보행자 안전지수 42위 등 여수시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편이었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수시와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